PR

관리번호
2014-PR-PR-11-138

K-water monthly magazine
NOVEMBER 2014 vol.563

물, 자연 그리고 사람



SPECIAL 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함께한 47년 17,155일의 기록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아름다운 물길 여행 이 가을,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K-water 사용 설명서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에 울려 퍼진 팡파르
물과 꿈이 공존하는 수변 도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 water

화산의 흔적이자 생명의 젖줄, 제주도 용천수





제주도 해안과 중산간, 산악 지역 곳곳에는 지층 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 나오는 용천수가 분포한다. 이 용천수는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던 1980년대 이전까지 식수원뿐 아니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해온 제주 사람들의 생명수이자 젖줄이었다. 지하수가 솟아나는 가운데 물은 음용수로, 양옆의 물은 채소 씻는 물로, 나머지 물은 목욕이나 빨래·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을 주민이 용천수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물 보전과 이용에 대한 연대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 제주의 독특한 물 문화도 싹텄다.

사진 제공 제주관광공사

CONTENTS

November 2014 vol. 563

CULTURE & LIFE

명화로 만나는 물 04
조제프 베르네의 특별한 바다

아름다운 물길 여행 26
이 가을,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WITH K-water

즐겨라, K-water 32
축제 마당이 된 한강 물 문화관

K-water Blog 33
K-water 블로그 '맛있는 수다(水多)' 방문객 수 300만 돌파!

K-water 사용 설명서 34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에 울려 퍼진 팡파르

아름다운 동행 36
대청댐관리단과 영실애육원이 함께한 사랑 나눔 가을 운동회

행복 사진관 38
전북지역본부 안정완 차장의 가족사진

SPECIAL
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함께한 47년 17,155일의 기록

그림으로 보는 K-water History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K-water 47년 08

CEO에게 듣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 복지, 10
건강한 수돗물로 실현하겠습니다!

K-water 생일 축하합니다
K-water 47주년을 축하하는 소통과 상생의 메시지 14
세계적 물 전문 기업의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K-water의 어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해온 47년 16
K-water의 땀방울만큼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K-water의 오늘
건강 담보하는 생명水, 국가 부흥 책임지는 활력水 18
물 만난 K-water, 세계 최상의 물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K-water의 행복한 순간들 20
K-water가 만드는 물로
더 따뜻해지는 세상

K-water 47인의 희망 메시지
11월생 직원과 신입 사원 47명이 뭉쳤다! 22
K-water, 우리가 완성합니다

K-water의 100년 대계
물 관리 100년, K-water가 책임진다! 24
실행, 혁신, 성과로 거듭나는 2015 K-water



창간일 1968년 8월 **통권** 563호 **발행일** 2014년 11월 5일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042-629-2242) **제작 대행** 더북컴퍼니 **인쇄** 팩컴AAP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실린 글과 사진은 본지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연의 극적인 면, 순간의 정점에 달한 감수성 표현

조제프 베르네의 특별한 바다

프랑스 화가 조제프 베르네가 그린 난파선과 일몰 장면, 화재 장면은 보기 드물게 빛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관찰했음을 보여준다. 베르네는 정리된 구도와 맑고 산뜻한 대기 묘사 등으로 프랑스 풍경화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손꼽힌다.

에디터 양인실

'바다, 석양(Marine, Soleil Couchant)'





'밤: 청명한 달빛이 비치는 항구(La Nuit : un Dort de Mer au Clair de Lune)'



'툴롱의 도시와 항구(La Ville et la Rade de Toulon)'



'폭풍우 치는 바다의 난파(A Shipwreck in Stormy Seas)'

클로드 조제프 베르네(Claude Joseph Vernet)는 난파된 배나 폭풍우에 휩싸인 바다 풍경에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풍경을 처음으로 그린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극적 풍경은 훗날 터너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걸작인 15점의 '프랑스 항구들' 연작은 18세기 생활상을 매우 훌륭하게 기록하고 있다. 베르네가 오랜 기간 직접 항해하며 완성했다는 이 작품들 중 13점은 파리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바다, 석양'은 어부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담은 동시에 그림의 반 이상이 드넓은 하늘과 바다로 채워져 있다. 클로드 로랭이 시작한 이러한 낮과 밤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풍경화의 전통은 베르네를 거쳐 이후 모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에게 풍경을 전달하는 효과 높은 방법이었다.

해 질 무렵이 되어 뭍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배를 끌어 정박하고 있다. 주변에는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서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바닷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베르네는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했다.

'툴롱의 도시와 항구'에서는 광장 양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건축물과 나무, 실제보다 더 현실적인 빛의 양과 그림자, 뒤로 펼쳐지는 도시와 바다의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빛을 굉장히 중요시한 베르네는 낮게 깔린 은밀한 빛의 효과를 통해 시적 풍경을 만들어냈고, 시각과 장소와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 구름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밤:청명한 달빛이 비치는 항구'나 '폭풍우 치는 바다의 난파'의 바다를 표현할 때도 빛의 양과 물결에 따라 수면을 각각 다르게 묘사함으로써 터치 하나하나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W

SPECIAL K-water

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함께한

47년 17,155일의 기록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작은 웅덩이에서 솟아올라 아래로 아래로 쉼 없이 흐르는 물처럼
K-water도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흐르며 발전해왔습니다.
댐 건설과 공업용수 관리를 시작으로 산업 단지 개발,
광역 상수도·지방 상수도 사업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수돗물 공급까지,
물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K-water가 있었습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47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양강댐 건설에서 스마트 워터 시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K-water 47년

1967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1968
4대강 유역 조사 사업 착수
수자원 조사 사업은 생활용수, 관개용수, 공업용수 및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종합적인 유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3
소양강댐 준공
소양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토석댐으로 수도권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1974 산업기지개발공사 창립

1977
반월 신공업 도시 기공
반월 신도시는 서울의 중소기업과 인구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었다.

1979
수도권 광역 상수도 1단계 통수
수도권 광역 상수도는 서울·성남·인천·수원·안양·반월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1980
대청댐 준공
금강 유역에서는 1968년부터 유역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한 뒤 대청댐 건설에 착공, 1980년에 준공했다.

1988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1988
합천댐 준공
합천댐은 부산·창원·마산·진해 등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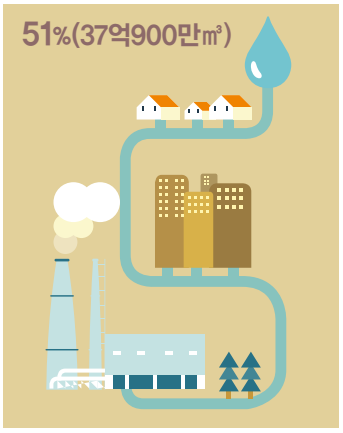
1999
물관리종합센터 구축,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준공
물관리종합센터는 권역 내에 산재된 수도 시설을 중앙에서 일괄 조정·통제·운영한다.

숫자와 키워드로 보는
K-water의 눈부신 발전

K-water가 관리하는 댐



전국 상수도 취수량의 K-water 점유율



2006
K-water CI 선포

2003
논산시 지방 상수도 위·수탁협약 체결

논산시 지방 상수도 위·수탁협약은 K-water가 최초로 체결한 지방 상수도 사업이다.

2013
김천부항다목적댐 준공

김천부항댐은 김천 유역의 홍수 피해 저감과 경북 서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 하류 수질 개선 도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4
'SMART 新 경영' 선언

4월
파주시 스마트 워터 시티 시범 사업 추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물'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첫걸음을 내딛다.

10월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Water & Dream City 시화 나래'로 더욱 진화할 예정이다.

11월
보현산댐 준공

금호강 유역의 물 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 저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K-water 69개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유류 대체 효과



신도시 및 친수공간 개발



서해안 골드코스트 시대의 시작
시화MTV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송산그린시티

친환경 복합 수변 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 복지, 건강한 수돗물로 실현하겠습니다!

최계운 사장은 취임 후 'SMART 新 경영'을 선포하고 K-water의 경영 혁신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젊은 직원도 감당하기 벅찬 일정을 소화하며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최계운 사장을 만나 K-water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문덕관





K-water 최계운 사장은 걸음이 빠르다. 성큼성큼 앞서 나가 먼저 보고 먼저 듣는다. 그래서 문제 파악도 빠르고 해결도 신속, 정확하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K-water 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그 부지런한 행보 덕분에 K-water는 산적한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정부와 물 관련 기관, 시민 단체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다.

"1년이 참 빠르네요. 무엇보다 K-water 본연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외부 평가가 좋은 걸 보면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최계운 사장은 13대 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동안 "전 임직원과 한마음으로 K-water 본연의 업무인 물 재해 예방과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목과 환경, 물 분야 전문가인 최계운 사장은 K-water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대학원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처음 일한 곳이 바로 K-water였고, 그 후 대학에 몸담으면서도 늘 K-water를 지켜봤다. 그러니 K-water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 직원들에게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강도 높게 경영 혁신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 더 믿고 응원해주세요."

최계운 사장은 'SMART 新 경영'을 선포하고 '미래 물 관리 선도, 국민 물 복지 실현, 고객 눈높이 경영'의 3대 경영 방침에 따라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추구해온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체에 건강한 물 공급'으로 물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몸에 이로운 미네랄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수 처리 공정과 공급 시스템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이다. 또 도서, 농촌 등 물이 부족한 지역에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 지역 간 물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이 우선

최계운 사장은 "기후변화 등 미래 물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 전문 기업인 K-water가 물 관리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 스스로 기존의 틀을 버리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시대가 다변화되면서 국민의 요구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뢰받고 더 큰 역할을 부여받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K-water는 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업이다.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잘 설정하고 있어서 미래의 물 산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비록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전 임직원이 모두 힘과 열정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 더 믿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마른 펌프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비록 한 바가지에 불과하지만 깊은 샘물을 힘차게 끌어 올리는 소중한 물이다.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K-water에 가장 필요한 마중물은 국민의 작은 관심일 것이다.



K-water 47주년을 축하하는 소통과 상생의 메시지

"세계적 물 전문 기업의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사용 가능한 물의 보전 관리가 전 지구적으로 미래의 큰 숙제인 가운데, 우리 역시 환경친화적이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은 국가 대사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물 공급에 큰 기여를 해온 K-water는 물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질 높은 물 이용을 위해 관련 기관인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 더불어 이의 주무 기관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시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이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K-water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물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미래에 세계적 물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최계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축하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주경순(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애써오신 K-water 최계운 사장님을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전국 16개 지부, 232개 지회로 이루어진 범여성 단체로, 평소 물 사랑 운동을 통해 전국 30여 만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해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또 수돗물의 수질 개선 및 불신 해소를 위해 토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사업도 전개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수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K-water가 명실공히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저희 주부교실 회원들도 그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병호(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K-water 창립 4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계운 사장님 취임 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MART 新 경영'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상생협력위원회는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올해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물·환경·갈등 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는 최계운 사장님의 국민 눈높이 경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물 관리 정책 운영 전반과 갈등 관리, 상생 협력 등에 대한 자문을 맡으며 K-water의 국민 공감 확보에 일조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과 상생하며 소통하는 공기업으로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K-water가 되길 기원합니다.

K-water의 창조는 열린 소통과 상생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물 전문 기업으로 향하는 K-water의 가까운 동반자이자 함께 미래 혁신을 도모하는 각계에서
K-water 창립 47년을 축하하기 위해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응원을 전해왔다.

에디터 양인실, 이선민 **포토그래퍼** 문덕관, 김진희, 홍하얀



윤용남(K-water 원로정책자문위원)

K-water 창립 4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계운 사장님은 취임 후 '스마트 新 경영' 선언을 통해 국내외 물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최계운 사장님을 비롯한 K-water 임직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강종수(사단법인 K-water 수우회 회장)

K-water 창립 4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수도 서울을 있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자원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국가 산업 단지를 개척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수도와 댐 시설의 운영 관리 시스템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5년은 수우회가 발족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K-water에서 봉직했던 분은 물론 현직에 있는 모든 분도 수우회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입니다. 과거에도 전 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크나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공적을 대견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견인한 큰 족적의 역사(歷史)를 빠짐없이 누구나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도 잘 남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한층 더 넓은 시야로 진지한 가운데 계속해서 나라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수우회 회원을 대표해 그동안 쌓은 훌륭한 업적과 창립 47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영배(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K-water와 지난 10년 동안 시화호를 생명의 호수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2014년 K-water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방조제 건설 20주년을 맞아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삶과 문화, 관광 · 레저가 공존하는 세계적 수변 공간이자 스마트 시티인 '시화 나래'의 창조적 건설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K-water의 47년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주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K-water와 발맞춰 '지속가능한 물'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water 창립 4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해온 47년

K-water의 땀방울만큼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47년간 대한민국 성장사와 역사를 함께해온 K-water는 물 걱정 없는 대한민국, 물로 특화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의 물은 모두 K-water와 통한다는 상식을 만든 47년간의 주요 사업을 정리했다. 에디터 이선민, 이정은

물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한길 수자원사업

1967년 정부는 수자원 종합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시대의 막을 열었다. K-water는 설립 직후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주암, 임하 등 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굿둑을 건설하는 등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와 전력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대한민국 수자원의 기본을 다졌다.

지금까지 전국에 18개 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굿둑, 5개 다기능 보를 건설했고 16개 보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위성을 이용한 첨단 물 관리 기술과 수계별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약 100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K-water를 설립한 후 최초로 건설한 소양강댐은 건설 당시 동양 최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1967년 4월 첫 삽을 뜬 후 착공 6년 만인 1973년 10월에 준공한 소양강댐은 높이 123m, 길이 530m, 폭 540m, 총저수량 29억 톤을 자랑하는 국내 최초 사력댐이다. 연간 12억 톤의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수도권 물 공급량의 45%를 담당한다. 또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69m까지 조절할 수 있는 5억 톤의 홍수 조절 능력, 4인 기준 12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연간 353GWh무공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댐이다. 아울러 소양강댐 건설로 형성된 거대한 인공 호수인 소양호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목적댐 건설 외에도 K-water는 환경친화적인 중소 규모 댐 건설, 통합 물 관리 시스템 등으로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생활과 산업을 책임지는 국가의 동맥 수도사업

K-water는 1973년 여천공단의 공업용 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 수도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K-water가 최초로 건설한 광역 상수도는 1996년에 준공한 일산 신도시 상수도. 이어 과천, 성남, 팔당, 원주, 태백, 충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을 차례로 마무리했다. K-water는 수돗물 공급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사업에도 참여했다. 2003년 최초로 논산시 지방 상수도 사업에 진출한 K-water는 2014년 10월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상수도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K-water는 전국 상수도 시설 용량의 46.5%(201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 113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가정에 2013년 기준으로 37억900만㎥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경제 부흥과 생산 기지 초석 다진 성장 동력 수변사업

K-water는 설립 초기부터 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 최초의 택지 개발 사업인 서빙고지구 매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1970년대부터는 구미공업단지 건설에 참여하며 전자산업의 전초기지를 건설했다.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확대·개편되면서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973년 정부가 의욕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K-water는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이리수출자유지역, 창원종합기계공업단지, 구미전자공업기지, 온산비철금속공업기지 등을 잇따라 건설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의 요람을 마련했다. 1988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로 재편된 뒤에는 안산 신도시와 시화지구 개발 사업 등 특수 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시화지구에 첨단 산업과 연구 기능, 생태·환경·문화를 중시하는 수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 전문 공기업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죠"

수도개발처 **박태현 처장**

저는 1994년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이 국토부에서 K-water로 이관되면서부터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초기 사업비가 7243억7500만 원이었는데, 이 숫자는 아마 치매에 걸려도 기억할 겁니다. 수백 번 고치고 또 고쳐서 나온 사업비거든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원도 빗발쳤죠. 덕소정수장 건설 당시에는 보상에 불만을 가진 주민이 담당자에게 소똥을 던진 일도 있고, 제2공구 터널 사업 때는 터널 안에서 60대 어르신 두 분이 나체 시위를 해 공사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했죠. 반면 팔당취수장 건설 때는 미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1·2단계 공사 때 수몰 지구에 해당되어 인근으로 이주한 어느 주민은 5·6단계에서 또 그곳이 수몰 지구가 되는 바람에 거주지를 다시 옮겨야 했지요.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수도권 광역 상수도 사업. K-water는 그 사업을 통해 물 전문 공기업으로 입지를 단단히 다졌고,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건설 현장과 관리 부서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수도 사업의 A to Z를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그처럼 보람이 큰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변 도시, K-water가 만들어갑니다"

수변도시처 **안형모 팀장**

1990년 K-water에 입사하여 안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 투입돼 10년간 안산에서 살았습니다. 시화지구는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곳을 K-water에서 도시로 만들어 현재는 90만 명이 살고, 연간 83조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는 수도권 대표 산업 기지가 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인분 세례를 받는 등 여러 민원에 부딪쳐가면서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거의 매일 자정이 넘어 퇴근하곤 해 몸은 힘들었지만, K-water 직원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의 시화호 일대는 관광·레저는 물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지구를 세계 최고의 수변 도시로 만들기 위해 'Water & Dream City 시화 나래'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마리나 시설 도입, 국제 테마파크 유치, 시화호 자연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성한 도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는것, 이것이 바로 K-water의 정신입니다.

건강 담보하는 생명 水, 국가 부흥 책임지는 활력 水

물 만난 K-water, 세계 최상의 물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K-water는 대한민국 물 산업을 책임지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넘어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도적 물 관리로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 K-water의 노력을 소개한다. 에디터 이선민, 이정은 **자료 제공** K-water



몸에 좋은 수돗물 마음 놓고 마신다 건강한 수돗물 공급

K-water는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파주시에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취수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수질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수질 진단부터 문제 해결까지 전담하는 토털 케어 서비스, 수돗물 품질 보증 보험 등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실시한다. K-water는 파주 시범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사업 모델 정립 등을 통해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K-water는 의료계와 협업해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물을 통한 미네랄 섭취와 인체 건강과의 상관관계 조사와 수돗물 안전성 진단 등을 통해 수돗물이 왜 '인체에 건강한 물'인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보여줄 계획이다.

물로 특화된 친환경 첨단 도시를 꿈꾼다 글로벌 수변 도시

K-water는 기존 산업, 주거 기능 중심의 단지 사업에서 탈피해 '물'로 특화한 미래지향적 안전 · 관광 · 레저 등의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시화 수변 도시 사업. 시화지구에 시화멀티테크노밸리와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서며, 첨단 산업과 세계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창조적 수변 도시로서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있다. 공사에 본격 착수 예정인 친환경 복합 수변 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수변 도시 계획에 따라 친수 구역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 관광 · 문화 자원 가치를 증진시켜 미래 세대에 안전한 수변 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K-water의 수변 사업은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수량, 수질, 생태 등을 통합 고려한 유역 물 관리 고도화
통합 물 관리

최근 들어 물을 둘러싸고 유역 간, 상 · 하류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도서 · 산간 및 지류 하천 등은 여전히 물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 홍수 등의 재해 예방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물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과 이해 당사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와 사회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합 물 관리(Inter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는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량, 수질, 생태, 문화를 고려해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유역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1992년 리우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이래 기후변화 등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물 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국가의 68% 이상이 통합 물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K-water는 복잡한 물 문제와 변화된 물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통합 물 관리(IWRM) Master Plan'을 수립하여 분야별 액션 플랜과 시범 사업을 2014년에 마련하였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 등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별 통합 거버넌스 운영과 유역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부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의 일등 공신
해외 사업

K-water는 1994년 중국 분하강 유역 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해 2014년 현재 23개국 44개 사업을 완료했다. 2009년부터는 직접투자를 통한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해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 사업 개발에 나섰으며 2014년에는 필리핀 앙갓 다목적댐 상업발전을 개시했다. 이처럼 K-water는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2023년 누적 수주액 1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선제적 · 과학적 기술력으로 이겨낸다
녹조 대응

K-water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녹조 대응 액션 플랜을 추진하는 등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물 관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녹조 대응 캠페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대토론회를 실시해 실질적인 녹조 저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 대책을 실천하는 중이다. 녹조 발생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댐 비상 방류를 실시하고, 녹조 제거 설비를 적극 가동하는 한편 국내 조류 저감 기술 업체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여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녹조 저감을 위한 수계별 수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유역별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에 제언함은 물론,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여 유역 관리 대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 풍성하고 평등하게 나눈다
물 복지 실현

K-water는 미급수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 상수도 인근의 미급수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 우물 등 먹는 물 관리가 미흡한 지역의 소규모 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체계 개선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 물 부족 해소를 위하여 육군본부와의 협력 등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K-water가 만드는 물로 the 따뜻해지는 세상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K-water.
더불어 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겐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강물처럼 K-water도
우리 이웃의 아픔과 슬픔, 기쁨까지 넉넉히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K-water,
이젠 K-water가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1


2


3


4




5


6


7

1 소외된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2 아이들과 함께 한 즐거운 벽화 그리기.
3, 4 겨울에 주로 하는 집수리, 연탄 배달, 김장 담그기 봉사 활동.
5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식수 개발 및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치는 K-water 해외봉사단.
6 부안댐 물 문화관 앞에 조성된 물놀이 공간.
7 2014년 라오스에서 열린 해외 사회 공헌 활동. (사진 제공:국민일보 곽경근 기자)
8 K-water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진안군 가족 캠핑.
9 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생일잔치.
10 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사회 공헌 활동.
11 밀양댐관리단에서 주최한 밀양호 연극제.


8


9


10


11

11월생 직원과 신입 사원 등 47명이 뭉쳤다!

K-water, 우리가 완성합니다

질문 하나! 47살의 K-water가 태어난 달은? 정답은 바로 11월이다. 같은 달에 태어난 직원들이 한데 모여 성대한 촛불을 붙였다. 여기에 K-water 47주년에 동료가 된 신입 사원들도 질세라 패기 넘치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을 모두 모아보니 바로 '47'이다.

에디터 양인실

이문희(광주수도관리단)
고생 많으신 지방 상수도 직원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지숙(아라뱃길사업처)
신입 사원부터 CEO까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K-water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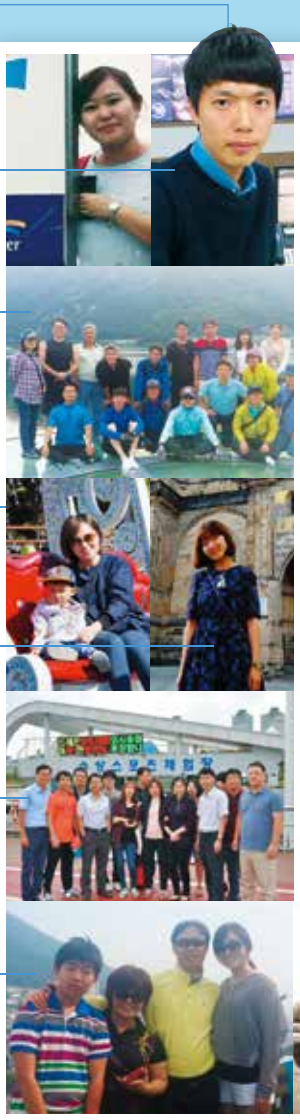
이보람(소양강댐관리단)
직원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K-water, 실천하는 K-water.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세정(시화관리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K-water를 만들어주세요.

김은지(봉화수도관리단)
함께한 47년과 더불어 많은 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생각되는 K-water가 되길 희망합니다!

조창현(K-water교육원)
생일이 같고 나보다 두 살 많은 K-water,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삶도 더불어 즐거워지길 바라요. 해피 K-water!

이윤정(파주수도관리단)
함께 있으면 즐겁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K-water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정윤(재무관리처)
47년간 이어온 자부심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100년 K-water를 만들어가요!

박미숙(경영관리실)
47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100번째 200번째 생일까지 쭉 이어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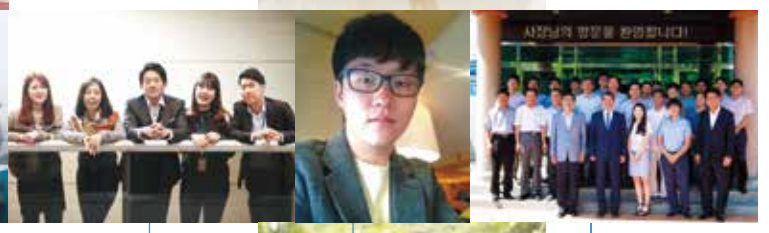
김주효(울산권관리단)
항상 웃음소리가 넘치는 'Smile K-water'가 되길 원합니다.

나귀영(물관리센터)
잘될 거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 K-water를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신홍권(여수권관리단)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K-water, 파이팅!

박준필(보령권관리단)
47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1 년도 행복하길!





남민정(홍보실)
누구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차별 없는 회사, K-water가 만들어주세요.

박문학(아산권관리단)
희망찬 미래를 위해 초심과 기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K-water Forever!!

조성민(수도경영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K-water Forward, For world!



오수인(전남서남권관리단)
길은 걷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 함께 길을 만들어나가는 K-water를 희망합니다.

We K-water

김태영(수변도시처)
K-water에 다니는 것을
모두가 부러워하도록
좋은 근무 여건 만들어주세요.

최유나(물관리센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닌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다솜(밀양권관리단)
47년을 발판 삼아 쭉쭉~
성장하는 100년
K-water를 만들어주세요.






고태곤(수도관리처)
일과 가정 모두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K-water를
만들어갑시다!




박가희(광주전남운영처)
늘 푸른 소나무같이
항상 국민을 지켜주는
K-water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병철(횡성권관리단)
바로 옆의 동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K-water 조직 문화'를
이끌어주세요.



박면규(주암댐관리단)
'경축! 창립' 47년을
이어온 선배님들의
땀과 노력을 소중히
여겨 K-water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김은혜(거제권관리단)
'언제나 smart하고
smile한 K-water'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윤상(고양권관리단)
국민과 소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아요.
긍정의 소리를
Turn~up~!♬

김태균(강원관리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 축하"

염재근(MTV건설단)
K-water와 내가 태어난 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우리 K-water 직원들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건승하시고 파이팅하세요.

최상수(대구경북관리처)
CEO 취임 1주년 및 공사 창립 47주년을 축하드리며,
제 생일과 공사 창립일이 같습니다.
이름도 상수(도)라 회사와 인연이 많지요.
그래서 더욱 파이팅입니다.

이상률(수변도시처)
불혹을 지나 지천명을 바라보는 K-water!
상선약수의 지혜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남청곤(태백권관리단)
수돗물 외에도 모든 수자원을
권장하는 진정한 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전선미(충남중부권관리단)
우리 직원과 직원 가족, 더 나아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소원(홍보실)
희로애락을 같이 나눈 임직원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김선호(밀양권관리단)
SWG를 시작으로 워터피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김용환(임진강건설단)
더욱 정감 넘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든든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제성(시화조력관리단)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물처럼 국민의 어려움과
바람을 포용할 수 있는 K-water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성곤(전북운영처)
큰 역경이 있더라도 물로써 끊임없이 도전하는
K-water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주(시화조력관리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화합하며, 발맞춰나가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를 희망합니다. ^_^

양시은(횡성권관리단)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K-water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서진(팔당권관리단)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K-water!! 파이팅!!

김성현(통영수도관리단)
더 밝고 활기찬 K-water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준(안동권관리단)
내가 SMART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K-water가 SMART해진다.

민상준(충남중부권관리단)
K-water가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구상해주세요.

박상철(충주권관리단)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안진경(고령권관리단)
즐겁고 따뜻하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K-water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K-water.

고하윤(수도경영처)
47년을 쉬지 않고 땀 흘려 달려온 K-water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규남(섬진강댐관리단)
현재의 위기를 넘어 K-water가 세계 최고의
물 전문 기관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물 관리 100년, K-water가 책임진다!

실행, 혁신, 성과로 거듭나는 2015 K-water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기업으로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K-water.
K-water는 2015년을 '100년 K-water를 향한 大도약의 동력 확보' 시기로 정하고
'SMART 新 경영' 선포를 통해 국가 물 관리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에디터 이정은 **자료 제공** K-water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K-water도 창립 후 47년간 쉬지 않고 흐르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댐 건설과 용수 관리를 시작으로 산업 단지 개발, 광역 상수도·지방 상수도 사업 그리고 지금의 건강한 수돗물 공급까지 물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K-water가 함께했다.

그리고 이제 최계운 사장 취임 후 'SMART 新 경영' 전략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한다. K-water는 최계운 사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전사적 역량을 모아 미래 준비와 공기업 정상화에 주력한 결과, 경영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2010년 이후 3년 만에 공기업 경영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K-water는 2015년을 '100년 K-water를 향한 대도약의 동력 확보' 시기로 정하고 실행, 혁신, 성과라는 키워드에 맞게 조직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창립 47주년을 맞아 'SMART 新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제의 사업화·구체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구조를 정부 의존형에서 자기 개척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안정적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물 관련 재난 안전을 위한 시설·사업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일하는 방식 혁신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 Smart 사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함으로써 조직 문화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K-water는 이러한 실행과 혁신을 바탕으로 조직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 2015년에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나아가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1967년 창립한 이래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앞장서온 K-water. 지난 반세기 동안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이제 'SMART 新 경영'으로 '100년 K-water'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몸에 좋은 건강한 수돗물로 물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물 복지 실현', 이 100년 대계를 향해 K-water는 오늘도 힘차게 흐르고 있다.

실행·혁신·성과를 위한 2015년 9대 핵심과제

미래 물 관리 선도

1 IWRM 시범 사업, 건강한 물 공급 후속 사업 체계적 추진

2 수변 사업과 해외 사업 적극 추진

3 국책 사업 내실화 ·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가치 창출

국민 물 복지 실현

4 물 정보 통합과 물 복지 시범 사업 성과 창출

5 시설 · 사업 전반의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6 협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정부 정책 선도적 이행

고객 눈높이 경영

7 Work Smart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8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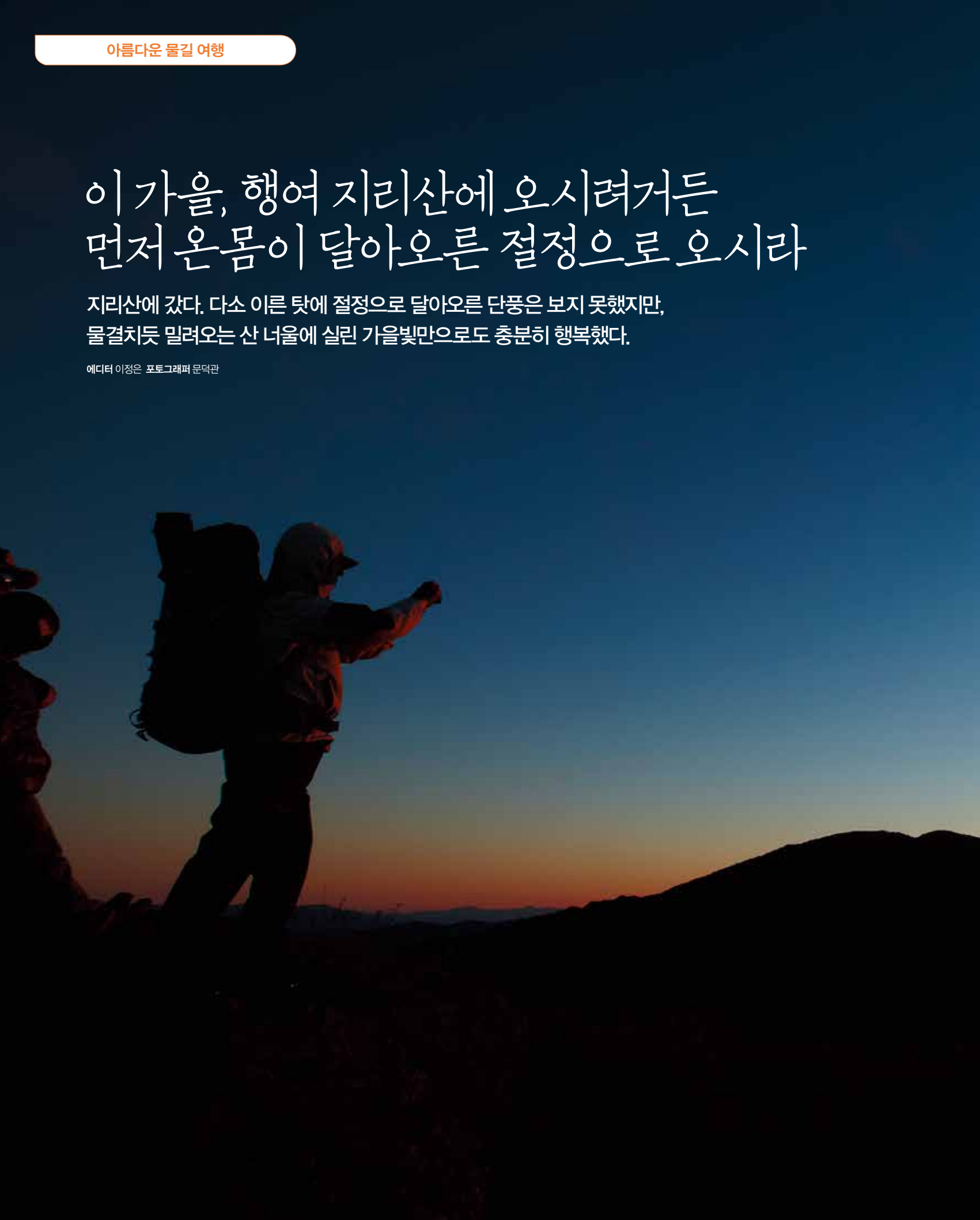
9 신뢰와 협력 기반 상생의 조직 문화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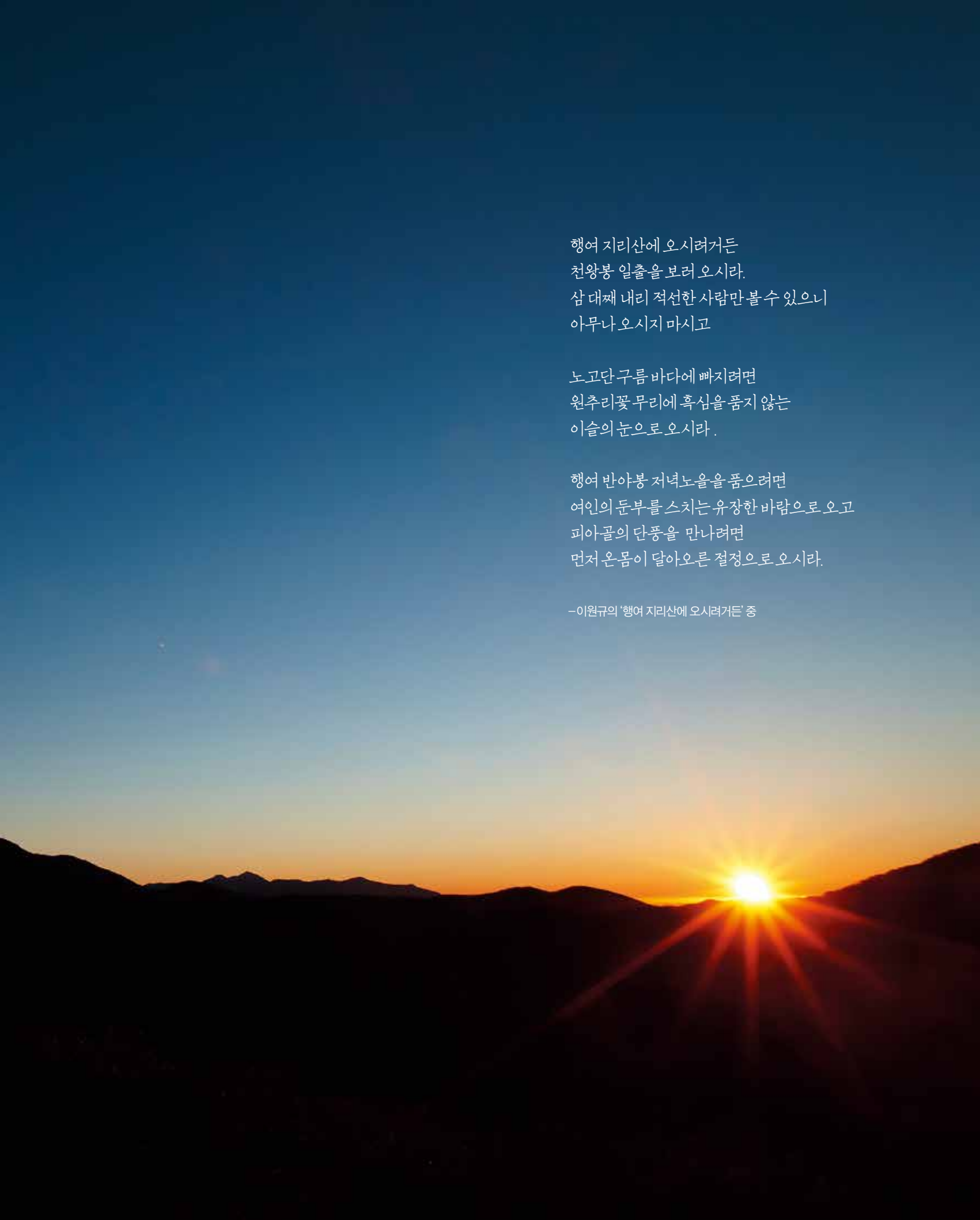


이 가을,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지리산에 갔다. 다소 이른 탓에 절정으로 달아오른 단풍은 보지 못했지만, 물결치듯 밀려오는 산 너울에 실린 가을빛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문덕관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 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시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 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꽃 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

행여 반야봉 저녁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이원규의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중



1 노고단에서 바라본 지리산 자락. 구름이 많은 날에는 운해가 장관을 이룬다.
2 달궁마을에서는 곶감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3 성삼재에서 노고단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 길이 잘 닦여 있어 비교적 편하게 오를 수 있다. 4 돌탑을 쌓아놓은 노고단 정상.



지리산은 장엄하다. 남원, 구례, 산청, 함양, 하동에 걸쳐 수십 개의 봉우리를 거느리고 의연하게 솟아 있다. 산세는 유순하나 골이 깊다. 깊은 골에는 감이며 밤이 지천으로 열려 굶주릴 걱정이 없는데, 이는 흙이 두껍고 기름진 덕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리산으로 들어온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들었고, 동학농민운동 후에는 동학도들이 숨어들었다. 해방 후에는 빨치산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 지금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의 품을 찾아 들어오고 있다. 민속학자 조용헌은 "사는 것이 외롭다고 느낄 때는 지리산 품에 안기고, 기운이 빠져 몸이 처질 때는 설악산 바위 맛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불쑥불쑥 외롭고 쓸쓸해지는 이 가을, 유난히 많은 사람이 지리산을 찾는다.

사실 지리산의 가을은 기암괴석이 단풍과 잘 어우러진 설악산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온통 붉은색으로 불타오르는 내장산처럼 곱지도 않다. 명도와 채도가 낮은 누런색, 붉은색, 녹색, 갈색, 회색 등이 봉우리와 능선, 골짜기를 물들여 장중하고 묵직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지리산의 가을을 만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종주를 하며 속살 깊은 곳까지 퍼진 단풍색에 취해도 좋고, 지리산 관광 도로를 이용해 병풍 그림 감상하듯 둘러봐도 충분하다. 취재진은 관광 도로를 이용해 노고단까지 오른 후 노고단 대피소에서 1박을 하기로 했다. 먼저 남원 산내면에서 뱀사골, 달궁으로 가는 729번 국도를 탔다. 뱀사골 아랫마을에는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아 논만 황금색으로 일렁였다. 산은 11월이 되어야 절정으로 물든단다. 지나다 보니 마을에 사과 과수원이 많다. 때깔이 좋아 한 봉지 샀는데 의외로 달고 사각사각하다.

"지리산 반달곰 사과예요. 고랭지 사과라 내년까지 놔둬도 단단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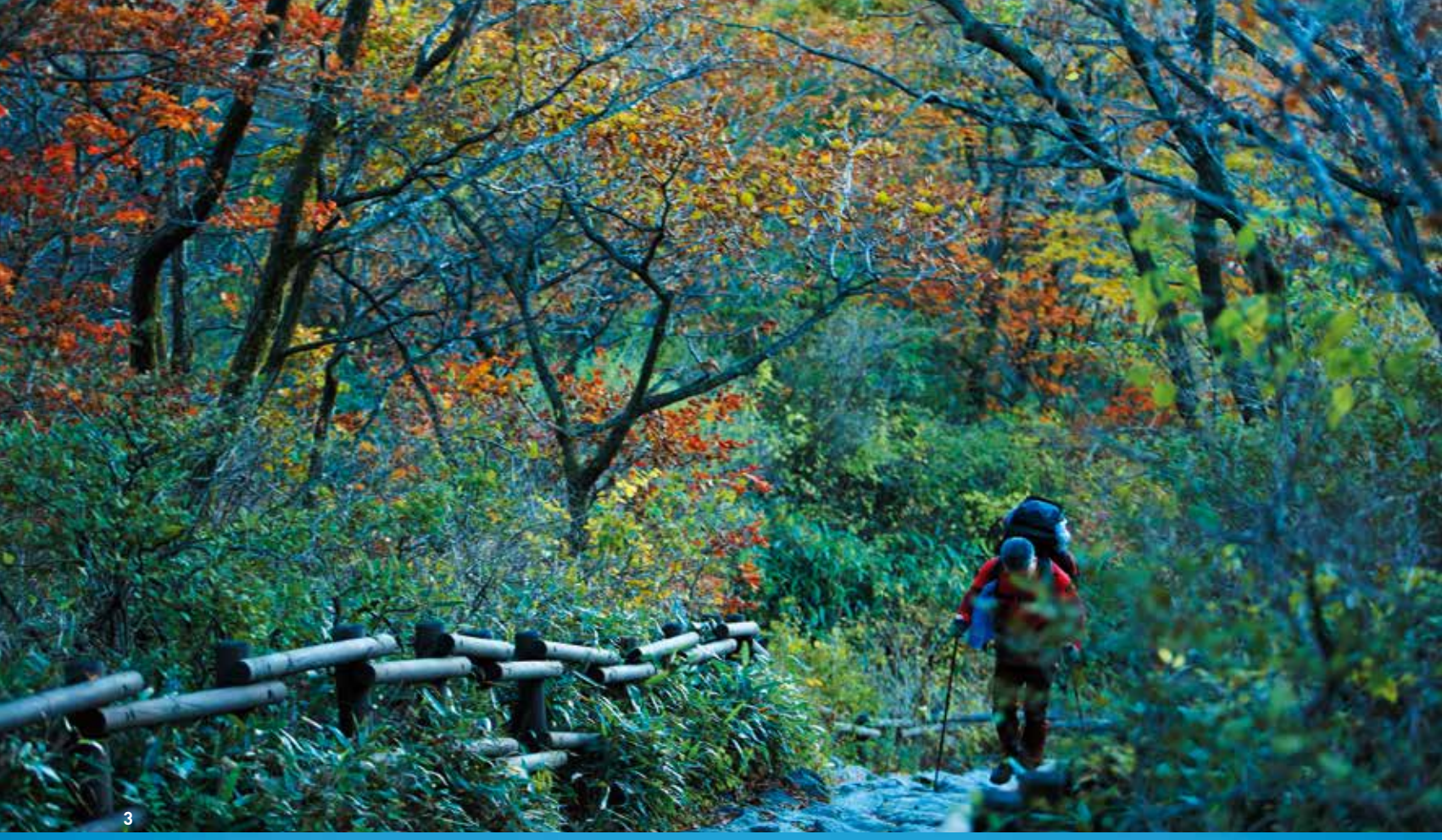
주인은 까치 먹은 사과 몇 개를 덤으로 주면서 감도 맛있다고 자랑한다. 달궁이나 심원마을 정도 가야 단풍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주인의 말에 기대를 품고 다시 차를 몰았다. 가파른 도로가 구불구불 이어졌다. 뒷좌석에 놓은 사과 봉지가 풀어져 사과가 데굴데굴 굴러다녔다. 덩달아 머리도 어질어질. 달궁에 이르자 나무들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도 자주 나타났다. 지리산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온 실감이 났다. 달궁삼거리에서 구례·노고단으로 가는 861번 국도로 갈아탄 후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심원마을에 들렀다. 그런데 마을이라기보다 민박·식당촌이었다. 모든 집이 죄다 개조해서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 마을도 사라진단다.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한봉을 생업으로 하던 주민이 관광객이 늘어나자 민박이나 식당을 하면서 달궁계곡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민과 협의해 내년까지 이주하고 2016년부터 생태계 보호 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단다. 씁쓸한 마음으로 성삼재에 당도했다.

삼나무 침상의 7성급 대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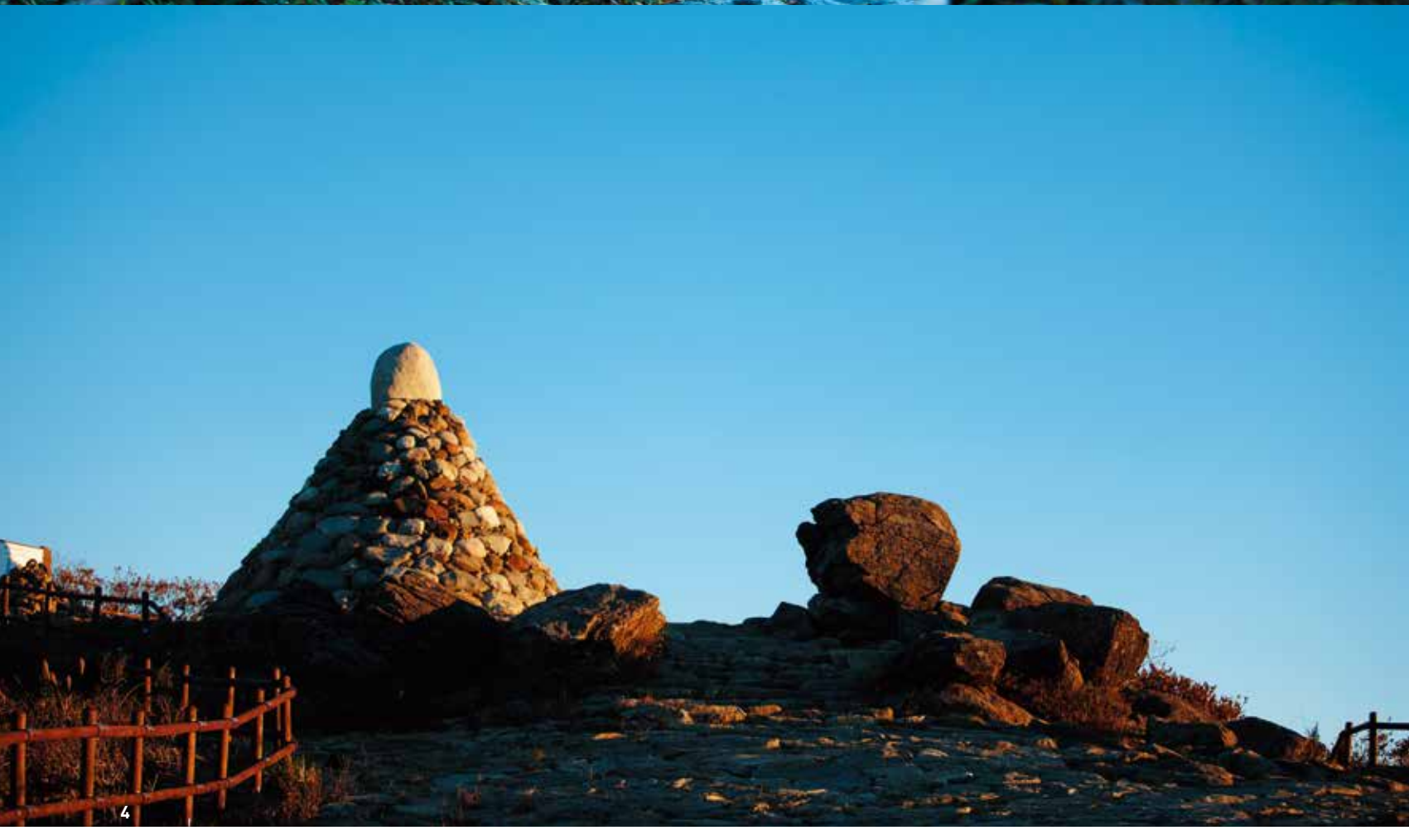
노고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성삼재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 올라가야 한다. 노고단을 오르는 길의 나무들은 잎 가장자리가 이미 고스러지고 있었다. 가파른 길이라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찼다. 아직 멀었나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노고단 대피소가 우뚝 보인다. 20년 만에 본 노고단 대피소는 전혀 딴판이었다. 외관도 그렇고 취사실이나 화장실도 그렇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삼나무로 지은 분리형 침상. 칸막이가 있어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자 지나가던 직원이 한마디 한다.

"7성급 호텔 부럽지 않죠?" "암요 암요!"

취사실에서 다른 등산객들과 즐겁게 고기와 술을 나누어 먹고(왠지 모르지만 산에



3



4





서는 인정이 넘쳐난다) 모두 잠든 9시(저녁 9시면 소등을 하니 억지로라도 자야 한다), 침낭을 들고 나와 평상에 누웠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 너무 많아 밤하늘이 눈부실 정도다. 게다가 은하수까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저 많은 별을 보고 별자리를 만들었을까?" 선조들의 밝은 눈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뭔가 쉬익 지나간다. 별똥별이다! 다음엔 꼭 소원을 빌어야지! 다짐했건만 그날 밤 별똥별 5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내 생애 처음 본 별똥별. 비록 '어!' 하는 순간에 사라져 '어!'만 다섯 번 빌었지만 잊지 못할 지리산의 선물이었다.

두 시간 동안 가을 밤하늘의 낭만을 만끽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는데 짧은 수면에도 몸이 가뿐했다. 삼나무 향 덕분인가? 지리산의 일출은 천왕봉이 지존이지만 노고단에서도 볼 수 있다. 검게 넘실대는 산 너울 위로 빨간 불덩이가 솟아올랐다.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솟았다. 말갛게 씻은 앳된 얼굴이지만 뭉클했고, 모두 잠시 말을 잊었다.

1 함양에서 마천 방향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지안재. 지안재는 정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다. **2** 가을빛으로 물드는 백무동계곡.
3 신라 구산선문 중 처음으로 문을 연 사찰인 남원의 실상사. 실상사의 해우소에 앉으면 천왕봉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사람이 사는 산, 사람을 품는 산

일출을 보고 대피소로 내려와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다시 노고단 정상에 오른 후 돼지령까지 갔다. 노고단은 지리산 서북쪽이라 산 아래가 구례와 하동이다. 산줄기 사이사이로 구례시가 보이고 노랗게 익어가는 하동 들판이 펼쳐지며 언뜻언뜻 섬진강도 보인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남북으로 큰 강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의 상류로 함양·산청을 거쳐 흐르고, 또 하나는 멀리 마이산과 봉황산에서 흘러온 섬진강이다. 노고단은 운해로 유명하다. 특히 가을에는 운해가 높이 생겨서 마치 발아래에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지리산에 자주 온다는 한 등산객의 말에 따르면 구름을 타는 듯한 기분이라고. 날씨가 청명해 운해는 많지 않았지만 대신 구례와 하동, 섬진강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노고단에서 다시 성삼재로 내려오는데 금요일이라 그런지 제법 많은 사람이 노고단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등학생 단체….

성삼재에 주차가 가능해지면서 노고단이 가족 나들이 코스나 학생들 체험 학습 코스가 된 것이다.

"말로만 듣던 지리산에 다 와본당께. 세상 참 좋아졌소."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시던 한 할머니는 차가 아니었으면 평생 와보지 못했을 거라며, 무릎이 아파도 노고단 정상까지는 꼭 가볼 생각이라고 하셨다.

예전의 지리산은 참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산이었다. 거리도 멀고 종주 시간도 길어 큰마음 먹고 와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당일치기로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산이 됐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지리산을 찾고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지리산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육산(肉山)이라고 했는데, 세월히 흘러도 여전한 모양이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산, 사람을 품는 산. 조용헌의 말처럼 사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질 땐 지리산의 품에 안겨볼 일이다. W


Jirisan
National Park
60
703
729
737
861
865
18
20
구룡탐방 지원센터
구룡폭포
수락폭포
만복대
고리봉
정령치휴게소
덕동자동차 야영장
달궁자동차 야영장
뱀사골탐방 지원센터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뱀사골야영장
와운마을
월평마을
백장암
법화사
실상사
산덕임도
잘랑마을
전북학생 교육원
삼불사
벽송사
탐방분소
영원사
백무동탐방 지원센터
백무동 야영장
치밭목 대피소
대원사
소막골야영장
장터목 대피소
법계사
로타리 대피소
세석대피소
연하천 대피소
벽소령 대피소
지리산 온천
시암재휴게소
청삼재탐방 지원센터
노고단 대피소
상선암
반야봉
삼도봉
토끼봉
피아골 대피소
천은사
화엄사
화엄사탐방 지원센터
황전야영장
화엄탐방 안내소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칠불사
연곡사
피아골탐방 지원센터
대성공원 지킴터
국사암
하동분소
쌍계사
청학동탐방 지원센터
산청분소
중산리탐방 지원센터
거림탐방 지원센터
내원사
내원자동차 야영장







축제 마당이 된 한강 물 문화관
우리 결혼했어요!

4대강에 설립한 물 문화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지역 주민을 위해 결혼식 공간으로 거듭난 한강 물 문화관에 다녀왔다.

에디터 이선민 **포토그래퍼** 홍하얀





'자유를 포기한 남자' 이석준 씨와 '모험을 선택한 여자' 심지엽 씨가 여주 한강 물 문화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잔치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였단다.

"원래는 집 마당에서 식을 올리려 했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처갓집 근처에 좋은 곳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 장인어른께서 이곳을 추천해주셨어요. 와보니 한강도 있고 주차장도 넓은 데다 교통도 좋고 무대까지 있어서 딱이다 싶었습니다."

신랑 이석준 씨는 여주 토박이인 아내를 위해 여주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12년 전 게임을 하다 처음 만났는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4년째가 됐다. 특별한 추억이 담긴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야외에서 하기로 했다고.

놀이패의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 시작한 결혼식은 주례가 없었다. 하객들은 무대 앞에 마련된 객석에 앉아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기며 함께 결혼식을 즐기는 분위기였다. 여주시 자전거연합회에서 축가로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를 하고 이어서 대금을 연주하는 동안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양가 부모님이 축사를 낭독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두 사람의 다짐으로 결혼식은 끝났다. 하객들은 색다른 결혼식이 인상 깊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심종현 한강 물 문화관 홍보위원은 "문화관에서 처음 치른 결혼식인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구심체가 되는 명소로 한강 물 문화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강 물 문화관은 평소 주말이면 여주농협의 직거래 장터와 문화 공연을 열고,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W



“소통과 사랑, 나눔이 있는 따뜻한 SNS를 구현하겠습니다”

K-water 블로그 ‘맛있는 수다(水多)’ 방문객 수 300만 돌파!



‘물’로 소통하는 K-water SNS는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와 사회·문화 이슈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대국민 소통 채널이다. K-water 블로그 ‘맛있는 수다(水多)’가 지난 10월 21일, 누적 방문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에디터 양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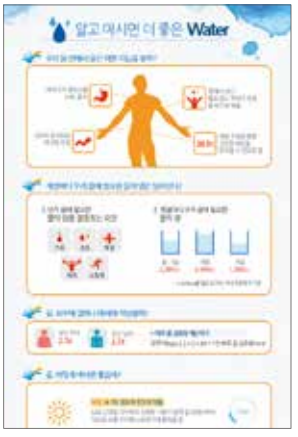
K-water 블로그 ‘맛있는 수다(水多)’는 ‘물’을 바라보는 K-water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겨 있다.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과 사람을 테마로 물에 관한 유용한 상식과 주요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국민 감성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블로그 ‘맛있는 수다(水多)’(http://www.blogkwater.or.kr)는 유익한 수다, 즐거운 수다, 행복한 수다, 브랜드스토리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물에 대한 기획 기사, 여행 및 생활 정보 등 트렌디한 감성 콘텐츠와 시화 20주년 특집 기사 기획 같은 기획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내 및 사외 기자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함으로써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더불어 방문자 의견을 모니터링한 뒤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여 방문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맛있는 수다 삼매경’ 퀴즈 이벤트, 세계 물의 날 특집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최초로 이벤트 경품 금액 10%를 기부하는 ‘할수(水)줄수(手)’ 캠페인을 펼치고, 정신대 할머니를 후원하는 ‘희움팔찌’를 구매하여 이벤트 경품으로 활용하는 등 온라인 기부 문화 조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진안군 마을축제 연계 가족캠핑, 시화호 20주년 기념 가족캠핑 등 온·오프라인 연계 대국민 이벤트를 전개하여 국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 블로그 ‘맛있는 수다(水多)’ 방문객 수 300만 돌파를 기념해 “K-water는 국민 곁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보다 다양한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블로그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한층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기획하여 소통과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SNS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W









1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에 울려 퍼진 팡파르

“물과 꿈이 공존하는 수변 도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water는 시화방조제 건설 20주년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4일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을 거행했다.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는 이날 선포식으로 ‘Water & Dream City 시화 나래’로 더욱 진화할 예정이다.

에디터 양인실 **포토그래퍼** 홍하얀


2


3

지난 10월 24일, 안산시 대부동동에 있는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위용은 더욱 당당해 보였다. 이날은 K-water가 시화방조제 건설 20주년을 맞아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시화호 미래 비전을 알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시화호는 1994년 방조제 건설 이후 주변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하루가 다르게 수질이 악화되었다.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년 만인 1996년, 막았던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고 유입 오염수 차집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입 지천 정비, 인공 습지 조성, 조력발전소 건설 등 범정부 차원의 사업을 다각도로 시행했다. 특히 K-water는 지자체, 지역 시민 단체와 2004년부터 총 4470억 원 규모의 '시화 지역 환경 개선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반월·시화 공단 악취 배출업체 시설 개선, 완충녹지 보완,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업, 수질 감시단 활동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기질 개선은 물론 1997년 연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7.4ppm이던 시화호의 수질 또한 2ppm 내외로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시설 용량 25만4000kW로 건설한 조력발전소는 연간 인구 50만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바닷물을 순환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또 호수 주변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이 계획돼 있어 첨단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리더, 신재생에너지 산실로 거듭나는 중이다.

바다에 꿈을 띄우고 문화를 입히겠다는 K-water의 의지

이날 선포식에는 최계운 K-water 사장, 윤영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수영 경기도 행정부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화순 화성부시장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해 시화호를 체계적인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오늘날 시화호는 K-water와 3개 지자체 그리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철새가 날아들고 갯벌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 보고의 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환경과 개발이 어우러진 단지 조성 모델로 시화호 북쪽에는 첨단 산업 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남쪽에는 관광·레저 중심의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50만 도시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해 운영 중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화방조제 건설 20주년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 1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시화지구를 세계적 명품 도시로 만들고자 금일 '시화호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네이밍'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합니다"라며 'Water & Dream City 시화 나래' 출발을 힘차게 알렸다.

이날 윤영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은 'Water & Dream City 시화 나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복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친환경 도시 지향, 삶과 문화 그리고 관광·레저가 공존하는 세계적 수변 공간 창출, 창조적 거버넌스로 상생 구현 등 3대 실천 전략이 포함된 비전 협약문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낭독했다.


4


5


6



7

1 최계운 K-water 사장이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Water & Dream City 시화 나래'의 출발을 힘차게 알렸다. **2** 1987년, 오이도에서 대부도를 거쳐 남양반도에 이르는 길이 12.7km의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어 7년 뒤인 1994년에 완공됐다. **3** 시화방조제에 국내 최초이며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조력발전소가 완공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4, 5, 6** 조력발전소 인근에 조성된 티라이트(T-Light) 공원에는 예술 조형물, 친수 체험 계단, 잔디 마당, 물결 광장과 산책로 등이 있다. 지난 5월에 개관한 조력문화관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7** 기념비 '시화 나래'가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비전 협약문 낭독에 이어 최계운 K-water 사장은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화순 화성부시장과 더불어 선포식에 함께한 내외 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계운 K-water 사장은 '우리의 희망, 시화 나래여 영원하라'는 문구를 적은 희망의 배를 띄웠다. 높이 3.5m, 폭 2.5m의 화강석에 '시화 나래'라고 새긴 기념비 제막식을 끝으로 '시화호 미래 비전 선포식'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 복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동시에 삶과 문화, 관광·레저가 공존하는 수변 공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민관 상생 협력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K-water의 의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W



대청댐관리단과 영실애육원이 함께한 사랑 나눔 가을 운동회

"동심을 꽃피우며 어른과 아이 모두 행복한 하루"

대청댐관리단은 지난 10월 26일 옥천 지역 아동 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 원생, 지도사와 함께 옥천군 군남초등학교에서 사랑 나눔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시작한 운동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으며 아이들뿐 아니라 대청댐관리단 직원도 즐겁기만 한 축제로 승화 중이다.

에디터 이선민 **포토그래퍼** 홍하얀

하늘은 높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 정취가 물씬 나는 10월 26일, 옥천군 군남초등학교 운동장에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K-water 대청댐관리단이 영실애육원 원생 40명, 지도사 16명, 대청댐관리단 직원 12명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 운동회를 개최한 것.

"2006년 영실애육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명절 때 선물을 주거나 영실애육원으로 봉사하러 가다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 운동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평소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던 삼겹살도 실컷 먹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놀다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청댐관리단 이규호 대리는 직원들 역시 아이들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매년 운동회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귀띔했다. 이 대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 대청댐관리단 직원들 역시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에 참여했다. 대청댐관리단 직원과 영실애육원 원생이 두 팀으로 나누어 풍선 터뜨리기, 기차놀이, 난센스 퀴즈 대회, 이어달리기 등을 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보다 더 재밌어요."

"뛰어노는 게 제일 좋아요."

열두 살 난 은혜도, 여덟 살 난 수연이도 오랜만에 어른들과 함께 이어달리기를 하며 신이 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아이들만 즐거











1 영실애육원 원생들이 평소 K-water에 대해 느낀 고마움을 카드섹션으로 표현했다. **2**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을 운동회를 즐기는 표정은 밝기만 했다. **3** 매일 오늘처럼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4** 오늘은 나도 달리기 선수. K-water 직원들도 이어달리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5** K-water 대청댐관리단 직원들과 영실애육원 원생들이 가을 운동회를 기념하며 한데 모였다.

운 게 아니다. 신나래 대리는 "오랜만에 뛰었더니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신 대리는 "입사하자마자 영실애육원 아이들과 인연을 맺어 지금은 가족 같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반겨줄 때면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청댐관리단은 4년째 영실애육원 원생을 위해 가을 운동회를 개최해왔다. 운동회 외에도 봄이면 놀이공원으로 나들이하는 등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실애육원 원생 중에는 움직이기 힘든 중증 장애아도 있어 대청댐관리단 직원들은 행사 때마다 아이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며 일일 보모 노릇을 톡톡히 한다.

K-water의 애정이 소외된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영실애육원 김경자 원장은 대청댐관리단의 관심이 원생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관리단 직원 여러분이 개인 주머니를 털어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김 원장은 예전에는 부모 없는 아이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모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맡겨진 아이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아 부모에게서 격리된 아이가 많은 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 장애가 있다는 걸 알면 키우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부모들 때문에 영실애육원에는 장애아가 많은 편이다.

"지체 장애아도 있지만 지적 장애아도 많아서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면 대청댐관리단 직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주셔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김 원장은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청댐관리단의 정성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청댐관리단 이석천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 계층 어린이가 함께 웃고 즐기며 추억을 만들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

전북지역본부 안정완 차장의 가족사진

아들들이 떠난 자리를 채워줄 소중한 추억

**전북지역본부 안정완 차장은 오랜 기간 주말 아빠 노릇만 하다가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내년이면 아들들이 유학과 군 복무로 집을 떠나게 되어 다시 이산가족이 된다고.
안 차장은 그동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영원히 함께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행복 사진관' 문을 두드렸다.**

에디터 이정은 **포토그래퍼** 문덕관







"지난 1989년에 입사했으니 회사 생활을 한 지도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 기간의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죠."

전북지역본부 안정완 차장은 장성한 아들 둘과 함께 모처럼 가족사진을 찍으려 하니 감회가 남다른 모양이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아빠의 부재에도 늠름하게 잘 자라준 아들과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을 잘 보필하며 집안을 꾸려온 아내에게 새삼 미안하고 고맙다고.

큰아들 진호 씨는 현재 공익 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오사카의 간세이 가쿠인 대학으로 진학해 1년을 마치고 군 복무를 하기 위해 귀국했다. 키도 크고 잘생겨 일본 여대생들에게 인기 짱이라며 엄마 김윤순 씨가 귀띔한다. 검은색 슈트를 말끔히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모델 뺨치듯 노련하다. 여대생 팬(?)과 많이 찍어본 듯한 솜씨. 둘째 아들 성진 씨는 대학교 1학년인데 전주에서 소문난 공부벌레. 재기 발랄한 형과 달리 숫기도 적고 수줍움도 많이 타지만 진중하고 듬직하다.

"아이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에 주말에만 아빠 노릇을 했어요. 요즘은 사춘기, 중2병 등등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걱정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착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일하랴, 집안 살림하랴 바쁜 엄마를 보면서 일찍 철든 게 아닌가 싶어요."

안정완 차장은 모든 공을 아내와 두 아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취재진이 보기에는 인자하고 살뜰한 안정완 차장의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다. 피가 어디 가겠는가.

3년 전에 전북지역본부로 내려온 안정완 차장은 10년 만에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있다. 그런데 내년이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큰아들 진호 씨가 군 복무를 마치고 일본 대학으로 돌아가고, 작은아들 성진 씨도 군대에 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진호 씨가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직장을 잡으면 앞으로도 가족 모두 함께 살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안정완 차장은 올해가 가족이 오순도순 한집에서 사는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쓸쓸하고 가는 시간이 아쉽기만 하다고.

안정완 차장은 그동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영원히 함께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행복 사진관'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인지 가족사진마다 미안하고 고맙고 아쉬운 안 차장의 마음이 듬뿍 담겼다. 아들들이 떠난 빈 자리를 행복 사진관의 가족사진이 채워주길 바라면서…. W









NEWS

K-water monthly magazine November 2014



'수돗물과 국민 건강 심포지엄' 개최

K-water는 지난 10월 28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함께 '수돗물과 국민 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K-water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환경독성보건학회와 공동으로 '수돗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열렸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한 성인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돗물, 정수기 물, 먹는 샘물 군으로 나누어 하루 1.5L씩 한 달간 마시게 하고 신체 변화를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한 결과, 세 종류의 물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수돗물을 마신 그룹의 경우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 물을 마신 그룹에 비해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각각 3.3%, 10%나 감소한 반면,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은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단기간 실험에서도 콜레스테롤 등 지질대사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본 것은 수돗물에 함유된 미네랄과 평소 마시는 양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활성화된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 진단 및 개선 방안, 국민이 바라는 수돗물, 수돗물 음용과 건강 영향 평가 등 다섯 건의 주제 발표와 '보건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수돗물과 국민 건강'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필리핀 앙갓 다목적댐 상업 발전 개시!



K-water는 10월 31일 마닐라 현지에서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앙갓(Angat) 다목적댐 발전 시설 인수인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댐 운영과 상업 발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앙갓 다목적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수력발전 용량 218MW 규모의 댐으로, 마닐라 시 수돗물 공급량의 약 98%를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팔당댐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K-water는 수익성이 검증된 필리핀 전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필리핀 정부가 국제 경쟁입찰로 실시한 '앙갓 댐 발전 시설 매각 사업'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그간 현지 SPC 설립, 자산 실사와 성능 평가, 유관기관 인허가, 인수 자금 조달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 · 관리하기 위해 앙갓 댐 인수인계식 후 현지 최대 기업인 산미구엘과 '앙갓 댐 공동 운영을 위한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을 통해 K-water는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과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음은 물론, 산미구엘로부터 지분 매각 프리미엄으로 약 300억 원을 지급받게 되어 경영 전반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댐 주변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 공헌 활동 및 댐 안전 문제 등에도 노력해 지속 가능한 댐 운영 관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앞장서

K-water는 지난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4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를 열었다. 사회적 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K-water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K-water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 지원과 구매 촉진에 기여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담회를 마련했다. 상담회는 상품 전시회와 업종별 사업 제안 설명회, 일대일 매칭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천한 사회적 기업 30여 개와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구매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이번 상담회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공공 기관 구매 업무 담당자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여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나눔과 배려의 윤리적 가치 실현에 힘쓰면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사회적 기업 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시아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다

K-water는 지난 10월 2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아시아 물 관련 고위급 회담(2nd Asian Water High Level Round Table, AWHoT)'을 개최했다. AWHoT는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를 주제로 각국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나누기 위한 자리다. 태국, 네팔,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물 분야 장·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는 아시아 각 국가의 물 공급, 위생, 수자원 시설, 재정 등 물 관련 세부 현안 사항을 공유해 보다 실질적 물 문제 해결책을 찾고 지속적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의 물 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지속적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기간 중에 제3차 AWHoT를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 물 관리 현황 보고서'를 출간하겠다"고 밝혔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제2회 아라문화축제' 개최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경인 아라뱃길에서 '제2회 아라문화축제'가 열렸다. 아라문화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아라뱃길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K-water가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 아라문화축제에서는 드래곤 보트 대회, 카누 마라톤 대회, 무선 모형 보트 대회 같은 육상에서는 보기 힘든 이색 수상 경기가 볼만했으며, 자전거 대행진,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18일 아라뱃길 시천가람터(검암역 인근)에서는 인천 10개 구(區) 대항전을 비롯해 일반 시민팀도 참가한 드래곤 보트 대회가 열렸다. 또 19일에는 아라뱃길 시천가람터에서 카누 마라톤 대회가 열려 선수부 경기뿐 아니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시민부 경기를 현장에서 접수받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아라문화축제 기간 동안 생명 사랑 문화 페스티벌, 구민 사랑 찾아가는 토요 콘서트, 정서진 실버 가요제, 시민 예술 체험 등 지역 기관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아라문화축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번 축제가 지역 화합과 시민 여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거듭나겠다"라며 아라문화축제의 개최 의의와 포부를 밝혔다.

건강한 수돗물 시범 사업으로 직접 음용률 19% 향상

K-water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 ·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한 수돗물 공급 시범사업 스마트 워터 시티'성과 발표회를 11월 11일 개최한다. 월드리서치의 수돗물 음용률 조사에 의하면, 시범 사업 지역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사업 시행 전 1%에서 19%로 상승했고, 끓여 마시는 음용률을 포함하면 37%에서 68%로 상승했다. 또한, 수돗물을 음식물 조리에도 사용하지 않던 수돗물 불신층은 23%에서 11%로 감소하는 등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건강한 수돗물 시범 사업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 결과 수돗물 음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Dear K-water

K-water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고귀한 의견 한 줄 한 줄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더욱 알차게 합니다.
11월 24일까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해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SPECIAL 3.0 K-water가 만드는 착한 수돗물

학창 시절 운동장에서 한참 뛰어놀다 목마르면 수돗가로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던 수돗물인데 언젠가부터 생수에 밀려버린 듯합니다. K-water를 통해 우리나라 수돗물이 얼마나 건강한 물인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미네랄이 듬뿍 들어 있는 수돗물 먹고 건강을 챙겨야겠어요.

권성현 대구시 동구 율하동로

O-트레인과 V-트레인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어디론가 떠나고픈 욕구가 생기는데, 기차 여행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석 배치가 다양한 O-트레인과 V-트레인을 타면 특별한 '트레인 자유 여행'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진과 기사만 보는데도 벌써부터 흥분되고 얼른 떠나고 싶네요. 정말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양은경 경북 문경시 흥덕동

낙도 어린이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마중물

물 복지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는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의 따스한 마음에 저절로 미소가 머금어졌습니다. 급수 보급률이 낮은 낙도를 찾아 일곱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낙도사랑 Rainbow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편리한 물 복지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미래의 꿈나무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 vs 인류가 400년 쓸 수 있는 셰일 가스

일본이 억지를 부리며 고집스럽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름도 생소한 새로운 에너지원 '메탄 하이드레이트' 기사를 읽고 알았습니다. 동해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봅니다.

황순옥 대전시 서구 둔산3동

2014년 10월호 정답자

이주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손춘애 광주시 남구 구동
윤정이 전남 순천시 서면 죽평리



코발트블루와 오방색으로
통영 바다를 그린 전혁림 화백



독도에도 매장된 대체에너지,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ICT를 접목한 스마트 워터 시티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같이가요

매주 수요일 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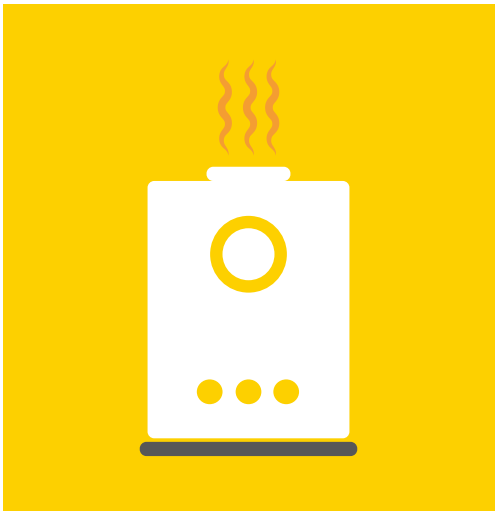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저녁을...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정시퇴근, 잊지 마세요!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지원 정보제공 앱 일·가정 톡톡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K-water와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 ⓫

정수기 스위치 끄고 주전자에 보글보글 끓여보세요

찬 바람이 불면 정수기의 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끓이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하죠.
하지만 정수기를 사용하면 정수 과정에서 많은 물이 낭비됩니다.
정수할 때 원수의 일부분만 사용하므로 70% 이상의 물이 버려진답니다.
또 물을 데우기 위해 상당량의 전기가 소모되지요. 정수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기가 없어도 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수기 스위치를 끄고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어떨까요?
잠깐만 끓여도 정수기 온수보다 훨씬 더 따끈합니다.